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제1702회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강연

"은퇴 후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이 중요"

퇴직 후 재취업·연금계좌 등 '우물형 자산' 강조

퇴직금 연금형태로 수령…유언장 작성법 안내도

"100세 시대는 축복인 동시에,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자산을 모으거나 보유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02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은퇴 후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무는 편안한 노후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곳간형 자산'과 '우물형 자산'을 제시했다.

그는 "곳간형 자산은 예금·주식·채권·부동산처럼 쌓아두는 형태로, 자녀 결혼이나 해외여행, 의료비 등 재량적 지출에 사용된다"며 "반면 우물형 자산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매달 생활비로 활용되는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이나 주식 등 '곳간형 자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우물형 자산'을 갖추는 것이 안정된 노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인이 안심하고 지출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달 급여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물을 얼마나 깊게 파고, 폭을 얼마나 넓힐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인용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정년퇴직 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재취업이나 퇴직급여, 연금계좌 등이 필요하다"며 "전국 월평균 최소 노후 필요생활비는 부부 217만1000원, 개인 136만1000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부부 296만9000원, 개인 192만1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급여 수령 및 절세 전략과 관련해서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며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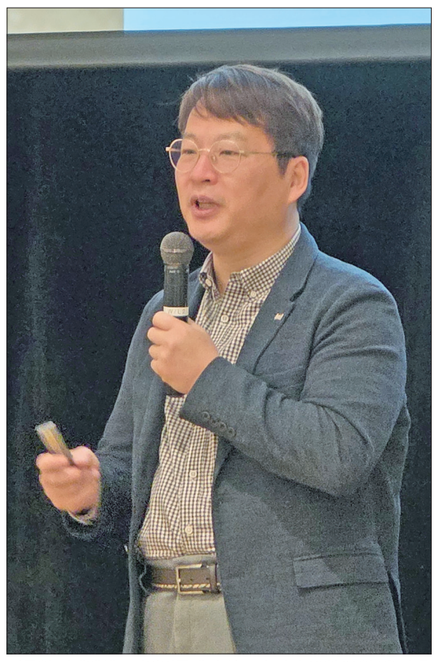
상속 전략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조사부터 상속재산 분할, 승인·포기 절차,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지정상속',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른 '협의상속', 유언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의 '법정상속'으로 나뉜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유언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언장이 없으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순위와 지분대로 재산이 분할된다"며 "유언장은 이름, 날짜, 전문, 주소를 모두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지만 정작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나만의 규칙을 세우고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지난 10월 31일 '은퇴 후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열린 제32회 광주세계김치축제에 참여해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 판촉과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쌀 소비 촉진 '온힘'

농협 광주본부, 세계김치축제서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열린 제32회 광주세계김치축제에 참여해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 판촉과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막일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식사를 거르기 쉬운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든든한 한 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우리 쌀로 만든 즉석밥, 쌀국수, 누룽지 등을 증정하는 '룰렛 이벤트'가 열려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 기간 동안 농협 광주본부는 광주 대표 브랜드 쌀인 '빛찬들' 햇쌀을 비롯해 우수 로컬푸드 농산물 30여종을 특판가로 선보였다.

이현호 본부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와 홍보가 함께 이뤄지는 대한민국 대표 김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제1회 농협중앙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성황

전국 농업인 1100명 참가…화순서 결승전 열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남 화순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결승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된 행사로, 지난 8월 경기·서울·인천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전국 9개 권역에서 예선전을 치른 뒤 선발된 1100여명의 농업인들이 결승 무대에 올랐다.

대회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본선 1라운드가, 30일에는 2라운드와 결승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김윤철 합천군수,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파크골프 체험존과 함께 다양한 농협사업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운영돼 참가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강호동 회장은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경기부양책 효과…3분기 카드승인액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7%↑…음식점 등 실적 개선

소비쿠폰과 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3분기 카드승인 금액이 6%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신금융협회의 '2025년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32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승인건수는 78억3000건으로 5.5% 늘었다.

세부적으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6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으며, 개인카드는 265조7000억원으로 5.9% 늘었다.

기업의 세금과 공과금 납부가 늘면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개인카드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비밀접 업종의 카드승인실적도 개선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금액은 40조61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도매 및 소매업은 157조580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달앱과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결제액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 집계됐을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4%)과 교육서비스업(7.9%)도 승인금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반면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산업 매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운수업 승인금액은 0.9% 줄었다. 영화관 관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승인금액이 1.5% 감소했다.

카드 종류 별로는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5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1% 늘었으며, 체크카드는 68조원으로 5.4% 증가했다. 3분기 소비쿠폰 지급으로 선불카드 실적 비중이 늘면서 전체 승인금액 대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작년보다 각각 1.5%p, 0.2%p씩 소폭 줄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국민연금 광주본부, 취업 멘토링·연금제도 홍보

전남대 JOB FESTA 참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전남대학교 JOB FESTA'에 참여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연금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층에게 번져있는 막연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입사한 신규 직원이 취업 준비 당시의 생생한 경험을 살려 방문 학생에게 멘토링을 실시했고, 국민연금 OX 퀴즈, 인생 네컷 이벤트 등도 제공됐다.

취업제도 설명회와 국민연금 바로알기 특강도 진행해 공단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의 호응을 얻었다.

설명진 광주지역본부장은 "노후가 먼 미래 세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연금 바로알기 행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